

삼천동 공방거리 브랜드 명칭 공모

전주시, 공예 작가들 소속감 부여·활동 강화...지역 주민 문화 향유 기회 증대

전주시 온두레공동체 '삼천사람-시민예술가모임'이 삼천동 수공예품 작가들을 알리고, 공방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참신한 브랜드 명칭을 오는 30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삼천사람-시민예술가모임'은 삼천지역의 공예 공방 작가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공예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결성한 공동모임으로, 지난 3월 온두레공동체에 선정돼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많은 공예 공방이 형성된 삼

천동을 대표하는 공예브랜드를 만들어 작가들에게는 소속감 및 함께 활동하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 증대 및 다양한 공예 활동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브랜드 네이밍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브랜드 명칭 출품은 삼천문화의 집 홈페이지(<http://3000.jcp.or.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cun3000@hanmail.net, 3000person@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다. 채택된 브랜드 명칭 중 최우수작에는 30만원 상당 경품이 수여되며, 우수작과 장려상에는 각각 10만원과 5만원 상당의 경품이 제공된다.

참여자 10명에게는 공예작가의 수공예작품 1점 등 소정의 경품이 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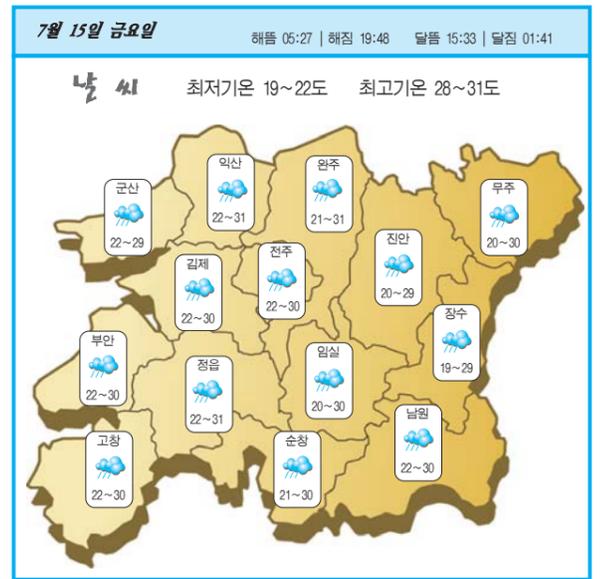
삼천사람-시민예술가모임은 당선자를 삼천동 공방거리를 대표하는 브랜드 네임으로 개발해 공예공방작가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향후 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전주시 공동체육성과 관계자는 "브랜드 네임을 통해 삼천동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공방거리를 활성화하고, 막걸리 골목과 함께 삼천동을 관광특구지역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모전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천문화의 집(063-224-308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지역기업 기 살리자 전주시가 지역기업 기(氣) 살리기를 위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선 가운데 14일 오전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희순 테크카본 대표, 임동욱 피치케이비 대표 등 전주지역 중소기업 CEO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CEO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사교육걱정 없는 세상'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해야'

니함옥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이 '신분제를 공공화해야 한다' 등 막말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신분제 공고화 중단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은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은 조선시대 반상제도로의 회귀가 아니라 부와 권력을 누리는 기회가 이미 특권 계층에게 유리한 구조이고, 그 추세를 확실하게 굳히려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실제로 한국사회는 이미 특권 학교, 입시, 채용 트랙을 통한 신분제 구축 과정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영어 유치원→사립초→국제중→특목고/영재고/자사고→SKY 대학'이라는 특권 학교 경로를 거쳐 '30대 대기업, 금융권, 공기업, 공무원'으로 진출이라는 특권층 경로 라인이 이미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스

원광대, WINNER LINC창의대접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무박 2일 동안 진행하는 몰입형 창작프로그램인 '2016 1st WINNER LINC창의대접'을 교내 6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열린 '2016 1st WINNER LINC창의대접'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전북도 등의 후원 아래 원광대 LINC사업단이 주관해 아이디어와 기술, 디자인과 전공 융합으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을 통한 창조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올해 행사는 아이디어 기획의 이매진트랙과 시제품 제작을 목표로 하는 메이킹트랙 출진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이매진트랙에 14팀, 메이킹트랙에 27팀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이기 그래피티, IoT 활용 현관문, 웨어러블 해충방지 액세서리,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연계 자전거도난방지시스템, 화장품 용기와 식물재배를 결합한 친환경 패키지 등 무박 2일 동안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서 이매진트랙 대상은 '개봉용 칼 일체형 식품포장용기' 아이디어와 마케팅전략을 발표한 더라스트 팀(팀장 최하림 공간환경산업디자인학과 4년)에게 돌아갔다.

또한, 메이킹트랙에서 최우점을 기록해 대상에 차지한 하이로우 팀(팀장 박종률 공간환경산업디자인학과 3년)은 '인 가구를 위한 조립식 1인 목재가구 KIT'를 3D프린팅을 활용한 시제품으로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고민형 기자

전주시 시세 수입 212억원 증가... 총 납부액 1481억원

징수율 90.4% 기록 · 체납액은 2억원 줄어

전주시 시세 수입이 혁신도시 이전 효과와 담배소비세 인상 등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지난 6월까지 총 1481억원의 시세가 납부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억원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대비 징수율도 1년 전보다 1.5%p 늘어난 90.4%를 기록했다. 체납액은 198억원으로 전년보다 2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증가의 주요 요인은 지방소비세와 담배소비세로, 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분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77억원(15.2%) 증가했다. 또, 담배소비세도 지난해 담뱃값 인상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66억원(46.5%) 늘었다.

시는 상반기 시세 초과징수에 따라 올해 시세 징수목표액을 3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모범납세자의 우대폭을 넓혀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성실납세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마을세무사 운영 등 납세자가 공감하고 세무행정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는다.

이에 앞서 시는 효율적인 지방세 납부 홍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내부에 홍보물을 부착한데 이어 TV자막 방송 등을 통해 납세자들이 잊지 않고

직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전북도 세정평가에서 최근 3회 연속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장병호 전주시 재무과장은 "지방재정수요 급증에 따른 지방세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제대로 대처하고, 급변하는 지방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날로 증가하는 복지재정 수요에 필요한 안정적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체납세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대, 신재생에너지 전문교육 캠프 호응

전북대학교가 방학 중 '신재생에너지 현장맞춤형 전문교육 캠프'를 마련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4일 전북대에 따르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 이 국가·지역 전략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산업체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 캠프를 실시한다.

해당 교육캠프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서 진행되며 대형 풍력발전기(1.65MW급)와 태양광 연구 장비 등을 활용해 실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기술과 신재생 관련 연구 기관, 기업체 전문가로부터 산업 기술과 동향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우게 된다. 또한 25일부터 28일까지 3박4일 동안 제주 연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직접 견학하고 체험함으로써 산업체 현장기술에 대한 진땀감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과 함께 전북테크노파크, 재료연구소 풍력핵심기술센터, 신재생에너지 소재개발지원센터 등 태양광과 풍력 관련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 연구소, 대학이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 인식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고민형 기자

국립전주대학교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